

* 팀NO : 2018-11

2018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캄보디아 3팀

공항 : 프놈펜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 캄퐁초남 ~~후안산~~ (2교구1팀)

3. 사역기간 : 2018년 7월 27일(금) ~ 8월 3일(금) / 7박 8일

담당

분과장

위원장

이성준 4/15

김영환

이성준 4/22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E-Mail
1	팀장	집사	홍순길 HONG SOON KIL	2	/	94-585		남			
2	총무	집사	김천이 KIM CHEONLEE	9	0	2012-65		남			
3	서기	성도	조숙영 CHO SUKYEONG	9	/	2017-131		여			
4	회계	집사	유성희 YOO SUNGHEE	7	/	2853		여			
5	의료	집사	이현규 LEE HUNKU	6	/	88-774		남			
6		은퇴 안집	안병택 AN BYONGTAK	9	/	94-1111		남			
7		권사	황경분 HWANG KYUNGBUN	2	/	2002-0345		여			
8		권사	안화순 AN HWASOON	2	/	94-334		여			
9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교구(부서)장

교구(교육)위원장

김영환 4/15

선교 소감문 (선교국가 : 캄보디아)

(사역기간 : 2018. 7. 27. ~ 2018. 8. 3.)

팀 번호 : 캄보디아 3팀 2 교구(부) / 팀 (팀장: 홍순길 안수원) 성명 : 홍 순 길

이번 선교는 캄보디아에서 선교의 낙심과 희망과 주님의 일하심을 동시에 보며 다시 한번 열정적인 증거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선교였습니다.

현지에 도착 후 만난 선교사로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선교의 열정이 있어가고, 일부지역 교회에서는 교회의 신도수가 줄기도 하고, 신학교 자체 학생수가 감소한다든 소수의 안락가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많은 바쁜 외국교회들과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더욱 낙심하였습니다.

현지 교회 탐방을 통해 확인한 전과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정적인 현지 사역자는 무연하게 만나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는데 열정적이고 큰 비전을 가지고 어찌나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난 후에 캄보디아 영혼은 향한 ~~주님~~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로 3번이나 같은 지역 (프누트)은 방문하여 현지교회 2곳에 대한 2월 4명과 4월 4명 (보여봉 초등학생), 4월 4명 (고분초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점점 흥망해가는 복음의 열매를 전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낙심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성경이 함께 하시며 복음은
듣는 자 중에 많은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거나" 라는 문구는 여느 때
그 땅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가득하기는 기도하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캄보디아 영혼들은 위하여 늘 기도하며
기려왔는데 마다 현지에 가서 선교하기는 다짐합니다.

소감문

캄보디아 3팀 총무 김천이 집사

사람도 자연도 아름다운 나라 캄보디아! 이번 캄보디아 단기선교는 세 번째 찾아가는 마을이 있어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4년 주기로 치러진다는 캄보디아 선거와 맞물려 일정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캄보디아 국민은 선거기간 주 경계를 넘지 못한다기에 기사를 두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사역지로 이동하였다. 한 시간 이상을 연착하는 버스를 기다리다 때 마침 까맣게 그을린 한국 분이 있어 대화를 나누는데 캄보디아에 들어온지 18년 차 파송 선교사 분이였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는 지역의 호프교회를 세우신 분이란다. 호프교회는 지난해에 찾아갔던 곳인데 문이 잠겨 발길을 돌린 곳이다. 현지 사역자를 세웠는데 생계를 위해 농장을 겸하고 있어 평일에는 문을 닫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또한 이런저런 캄보디아 선교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사역지에 도착한 후 우리 팀은 주일예배를 지난해 방문했던 교회에서 드리기로 하고 연락을 취했는데 답이 없어 호프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교회 앞 마당에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곳 전도사께서 한국을 다녀온 분으로 서툴지만 조금 우리 말을 할 줄 안다며 인사를 한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6km쯤 떨어진 곳에 있고 아이들이 80명쯤 출석한다고 한다. 다음날이 선거로 인해 임시 휴무일이라 교회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약속을 한 후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하였다. 교인은 없고 청년 셋이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한 후 교회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한국의 모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해 주었는데 지금은 지원이 끊겨 현지 사역자가 너무나 어렵게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모든 팀원이 눈물로 하나님의 사역을 요청하며 기도드리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겁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출발하려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 애타는 마음도 모른채 쏟아지던 비가 잠잠해질 무렵 교회에 도착했으나 비가 와서 집에 돌아간 아이들이 많아 40여명이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하물며 40명이나 있지 않은가? 우리는 빗을 통한 전도, 색칠공부, 율동배우기, 풍선터트리기 게임, 영화 상영을 하며 날이 저물도록 함께 했다. 이후에는 고학년 학생들과 주변 마을로 축호전도를 다녔다.

교회는 강대상 위의 천정이 파손되어 복구를 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재직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께서 비용 마련을 못해 2년째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게 5년뒤의 꿈을 물으니 한치의 망설임없이 주변에 이와 같은 교회 5곳을 세우는 것이란다.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어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 헌신하는 이 청년사역자를 돕도록 하였는지, 이 척박한 캄보디아 땅에 이처럼 귀한 사역자를 만나게 해 주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철저하시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감사를 드렸다.

우리는 기도하며 그를 돕기로 했다. 자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온 사비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놓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며 팀원과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제 그는 더 큰 기도와 헌신으로 캄보디아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날 찾아가한 끔발처옉푹 마을, 갈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곳이다. 그 곳에 흥 팀장

의 제안으로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고 책을 채웠다. 비록 3칸의 책장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서관이 세워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3년전에 찾아간 뽕피봉 초등학교에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다. 이곳에서 마음껏 선교 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팀장과 함께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고학년을 대상으로 1시간 사역을 요청했다. 큰 고민없이 허락해주어 2개반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말씀, 색칠공부 그리고 운동장에서 줄다리기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에 우리가 더 행복하다. 이어서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전도, 목청껏 외치는 학생들의 뽕레하예수 쓰롤란 네약, 3년전 방문했을 때 서명하여 전달해준 성경책을 들고와 우리를 기억한다고 보여주는 선생님, 불편한 몸을 이현규 집사님께서 치료해주고 함께 기념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주니 교장선생님마저 표정이 환해졌다.

내년에 가면 더 적극 반겨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차근차근 사역하고 계심을 새삼느낀다. 뽕피봉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커다란 불교사원이 있다. 이를 바라보며 통학하는 학생들이지만 이들도 머지않아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혹자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가 철수해야 할 때라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다녀온 시골 현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할 때 라고 외치고 있다.

뼈속까지 우상을 믿고 있는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이 사역자의 도움없이 주님께 돌아올 수는 없다. 그리고 헌신하는 현지인 사역자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Roleap교회 속짜이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앞에 나의 편견은 무너지고 그러한 사역자를 돕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 생각한다. 또한 한국교회에서 세워 비워져 가고 있는 교회를 찾아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교회가 나서서 다시 채워주기를 소망하며, 이번 선교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과 중보기도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신 교구 및 교회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어꾼 쏜 뽕레하 뽕러띠언 뽕

2018. 8. 2

선교 소감문(선교국가 : 캄보디아)

(사역기간 : 2018. 7. 27 ~ 2018. 8. 2)

팀 번호 : 2018-11 캄보디아 3팀(팀장 : 홍순길 안수집사) 성명 : 조숙영

새가족이 되고 처음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1년 조금 넘었으니,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7.27일에 떠나는 일정이었는데 4. 1(주)부터 상견례를 시작으로 팀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정 중에 필요한 CMTC 교육도 받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도도 하고, 현지에서 전할 복음을 캄보디아어로 배우기도 하고...

처음 참여하는 사람인데, 선교를 여러번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겐 어떤 부분이건 작게라도 도움이 되고 쓰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바람이 있는 만큼 걱정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캄보디아는 여름이 한창이었습니다.

현지에서도 아주 오랜만인 국민투표가 우리팀의 계획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했던 차량으로는 최종 사역지인 푸르사트로(투표로 인해 현지인은 주와 주 사이를 이동할 수 없었고) 이동할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고, 첫날 사역하려던 로립교회 가는 길에는 비가 내려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어린이들 중 대다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까지... 모든 것이 처음인 저의 머릿속은 이때마다 참 아득했습니다.

뭐라 말씀도 못 드리고, 마음은 조마조마 한데 팀원들이 내색을 안 하시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말씀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니 믿고 따르면 된다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역사하실 거라고'...

그리고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 되어졌습니다. 푸르사트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현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나 현지 교회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로립교회에서는 교회의 상황을 좀더 볼 수 있고, 아이들과 좀더 얘기할 수 있었고 주변에 집을 방문하여 주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역기간 동안 많은 어린이들을 만나 그 맑은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고운 입술이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팀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릴 수 있도록 하시고, 율동과 찬양 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마음에 담길 수 있게 예수님의 일생을 영화로 나눌 수 있게 하신듯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은 가까이 두고 보라고 성경책으로 이야기 책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한참 자라는 아이들의 영육이 강건하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한 작은 운동회(풍선터트리기, 줄다리기, 단체줄넘기)를 통해 은총 가득한 웃음 소리를 들려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이들이 다함께 힘주어 읽음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난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가족사진을 나눌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우리팀의 길에 늘 함께 하여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무언가를 갖고 있고 채우는듯 하지만 부족함이 훨씬 많은 저에게 모자란 것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였는지 진중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나고 온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건실히 지킬 수 있도록 매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주를 만나게 된 기쁨, 감사 그리고 기도가 늘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선교 소감문 (선교국가 : 캄보디아)

(사역기간 : 20 ~ 20)

팀 번호 :

함부(부)

3

팀 (팀장:

홍준길)

성명 :

유성희

우리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복음이 박힌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이 팀이 감동받았다. 특히기회를 통해 기도하기를 팀이
인제로 깨닫는 자가 되지 않기를, 무엇보다도 주어진 것을 존중하기로 마음을
먹고 섬김에 임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참여하였다.

그리스도에게로 우연이 없다고 믿게도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평소 내가 약한바 심한 운동이나 우리가 가는 행장은 하지 않기를
위해서 권고한 상황. 이동중 갑자기 우리가 가는(?) 상황 발생
때를 때려, 신재도, 김재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동하는 것을
위해서 기기로 할일이, 준비되었다. 주교총대인 우리차에서 내려야

해당하는 것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격한 수가 있었다. 팀이 무제한
생긴 것이다. 가장 큰 공격했던 팀이 인제로 깨닫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내가 감동받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명이 있었다. 특히를 비로 내린 것은

팀이 이젠 감동받아서 도움을 주셔서 내를 주셔서 감사함. 신기한 것은 지난 시간
이벤트는 나 혼자 데 해주는 것. 내를 볼 수 있는 내를 매우 소중한 시간으로

시간이. 불에 소망이 해주는? 이 때를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감동으로 해주는
사역자로 주셔서 이동. 소망을 해주는 인제 감사함을 주어 감사함을 받았다.

이제 소망으로 무한으로 가장한 팀이 유난히 많았다. 가장함을 잊.

가장함을 잊음. 가장함을 감동. 우리가 박는 때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감사한 기회를 주셔서 모든것을 아는데 주셔서

감동한 우리 사랑 것이나 하나님의 기쁨을 주셔서 모든것을 쓰임받는 것임을

감사함을 느꼈다.

선교 소감문 (선교국가 : 캄보디아)

사역 기간 : 2018. 7. 27.~ 2018. 8. 3.)

팀번호: 캄보디아 3팀. 팀장: 홍 순 길 집사. 성명: 이 현 규
저희 캄보디아 3팀은 진정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한 축복의 선교팀이다.

왜냐하면 특별한 선교계획 없이 그저 선교일정의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전 팀원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성공한 한 사례일 것이다. 팀장님께서 처음에는 선교계획이 있으셨으나 뜻하지 않게 다른 팀이 우리 계획에 끼어들게 되고 그 교회가 그쪽 팀의 어린이사역을 받아드리게 됨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계획은 허공에 뜨게 되고 팀장님은 이로 인한 마찰을 피하시기 위하여 그 계획을 포기하셨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획 없는 선교팀이 되었으며 팀장님은 이번 선교를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언어공부에 전념하고자 결정하셨다.

우리는 불안 하지만 팀장님의 결정에 순종하며 기도와 언어공부에 매달리게 되었고 2차까지의 영성훈련을 통하여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더더욱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선교일정에 개입하심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첫째로 우리 팀의 사역지가 프놈펜에서 승용차로 5시간 거리인 프르삿트인데 캄보디아의 정치상황 때문에 프르삿트 지역까지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하고 시외 뺄스로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더운 시외 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17년 전에 캄보디아로 파송 받아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인도로 선교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루 하루 성령님은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셔서 은혜로운 선교의 길로 인도하셨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선교열정과 다르게 타올랐던 선교의 불씨가 꺼져버린 안타까운 선교의 현장을 보여주신 반면에

선교사님의 연결고리의 일환으로 만난 전도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어린이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예수님 영화와 색칠하기 풍선놀이 등 예수님은 누구시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연접해야 한다는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었고 이 교회에 시무하는 젊은 전도사의 희망찬 내일의 꿈을 보았다. 매일 매일 목적을 향하여 기도하며 응답받는 전도사님의 기도의 현장도 보았습니다.

셋째로 학교 사역에서는 꼬디뽕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모든 학사일정을 미루어 놓고 우리 선교팀을 받아들여 4.5.6학년 약 150명 정도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선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생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으며 교무실에서는 교장,교감 등 총 6분의 선생님들이 아픈 곳을 치료받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넷째로 교회가 없는 끔발처오푍 마을에서의 어린이 사역과 주민과의 가족사진을 찍어 즉석에서 인화하여 나누어주며 영화를 상영하고 의료봉사와 이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열어 이 끔발처오푍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은 이 마을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기도하며 마을을 떠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찌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하신 잠언의 말씀처럼

캄보디아 3팀 모두가 순종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화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끝.

선교 소감문 (선교국가 : 캄보디아)

(사역기간 : 2018. 7. 27 ~ 2018. 8. 3.)

팀 번호 : _____ 2 교구(부) 연로팀 (팀장: 홍순근) 성명: 안병택

항상 안수집사님 팀장으로 캄보디아 3팀 8명은 7월 27일 푸동펜
공항에 도착, 숙소에서 여장을 풀고 28일 아침 사역지 푸르사드로
출발 계획이었으나 29일 캄보디아 신^기독물이라 캄보디아 언론
기사는 다른 주로 이동이 불가하여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사역지로
이동중 17년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 목사님과 동행
하여 현재의 사역 현황과 2분에서 개척하신 푸르사드 교회
(2017년 푸르사드 단기 선교 사역시 방문 했으나 물이 달혀 교역자를
만나지 못했음)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팀 주일 예배를
시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후에 이교회 평동복사로 있는 현지인 독지에 목사님을 만나
자신이 개척 사무하는 프랑코리에서 어린이 사역을 요청 받고
30일 오후 3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사원이 약 50명을 대상으로
준비된 사역을 마칠수 있었으나 교회당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강대상 천장이 무너져 내려 수리도 못한채 천막으로 칸을 막고
예배를 드린다고 함. 교회에 찬성하는 성인수는 약 15~20여명
이고 주일 학교에 참석하는 어린이는 약 100명 정도 되며
목사님은 푸르사드 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 재직하며 학교에서
받는 급여로 교회를 운영 한다고 함. 성도들은 쌀과 음식으로 헌금을
내실 하기 때문에 교회당 천장수리는 경제 여건이 되지 않아
그동안 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며 목사님 자신은
앞으로 다섯 곳의 교회를 더 개척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고
지금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복의 몇 명이 스터디 그룹을 운영
하는 청년 복회자(33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혜자님은 느끼게 되었고 우리 선교팀 전원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모아 충분히 안치만 교회 전광 수리를 위하여 원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기간 우리 선교팀이 계획한 금교사역, 홀로 된도, 의료사역, 도서 물고 설치 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나 상한 많이 한국 선교사²를 통하여 로림교회 속자에 복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로림 교회의 어려움이 우리 선교팀을 사용하시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게를 채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기간중 느낀 것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단기 선교사가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으나 연대 맺음은 비약 한것 같고 도리어 무슬림의 고세 확장은 무서운 속도로 번져 갔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연대성 복음권자가 아닌 동장기 선교사 파송과 현지인 사역자나 연합하여 복음이 뿌리 내리 연대 맺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선교 사명이 되었으면 하리 기도 합니다.

선교 소감문 (선교국가 : 캄보디아)

(사역기간 : 2018. 7. 27. ~ 2018. 8. 12.)

팀 번호 : 2018-11

2 교구(부) 3 팀 (팀장: 홍순길) 성명 : 안 화순

우리 팀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캄보디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으로 무장하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갔다. 도착해보니 하루밤 - 29일이 선거일이라서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날때 ~~제~~ 제제를 받고 폭풍의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의 우리들은 할수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버스를 타고 사역지로 갔다. 우편의 연례로 버스 안에서 우편과 선교사로 제선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많은 정보와 그곳 교회사정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됐다.

교회로 방문했는데 한국교회 자원이 풍부 자랑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있으면 목회자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자원이 비가 새는것을 보고 아깝기 참함했다.

또 한국교회로 갔을때는 주일에만 화요일로 아이들이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는데 젊은 목사님 부부가 60여명의 동네 어린이를 돌보고 있어서 희망이 보였다.

초등학교 사역을 할때는 그림그리기와 영상으로 전도지 관계성 확립을 알렸을 뿐이며 결단했다. 팔팔하고 큰 목소리로 따라하는것을 보고 어린영혼들에게 예수그리스도 생명의 새소리를 기로했다.

그날처음부터 마을사람에게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찬양과 운동 그리고 생명의책으로 전한다

관계성의 원인들이 나무를 자르고 폐인도 끊어서 손수 제작한 책광에 준비해가지고 책들을 꾸미고 작은 도서관을 개설했다. 이책들이 잘 보존되어 동네아이들에게 읽혀져서 문맹률과 우리는 할수있으나 반드시 우편의 생명의 봉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역을 하겠다